

대주아 발생이 많고 수량성이 높은 마늘 ‘대사니’

강형식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064)760-7221

제주지역 마늘은 재배면적 2,182ha, 생산액 990억원에 이르는 주요 소득작물이다.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남도’ 마늘은 갱신없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종구가 퇴화되어 생산성과 상품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마땅히 대체할 품종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마늘 품종육성사업을 착수한 결과, 2016년 수량성이 높은 ‘대사니’를 품종보호 출원하였다.



○ ‘대사니’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 교배가 어려운 마늘은 제주 및 남부 지방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유전 자원 중에서 우수 주아를 선발하여 계통을 증식(‘09~’12년)하였고, 생산력 검정시험(‘11~’14년)과 지역적응시험(‘13~’15)을 거쳐 2016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하였고 3개년 동안 재배심사 후 2019년 12월에 ‘대사니’로 품종보호등록되었다.

○ ‘대사니’ 특성은

마늘 ‘대사니’ 초형은 개방형이며, 구 모양은 원추형이고 구피색은 흰색이나 내피는 다소 연한 편이다. 초장은 남도마늘과 비슷하나 엽수가 많으며, 엽초경이 두꺼워 생육 정도가 양호하다. ‘남도’에 비해 추대기가 3~4일 빠르면서 대주아 발생 비율이 높고, 잎마름병에 강한 편이다. 또한 구고가 높고 구중이 무거워 상품수량이 31% 증수되었고, 지역적응시험(’13~’15)에서는 1,637kg/10a으로 남도(1,387kg/10a) 보다 18% 많았다.

- ‘대사니’ 생산 특성

품종명	생구중 (g/구)	구경 (mm/구)	구고 (mm/구)	인편수 (개/구)	총수량 (kg/10a)	상품수량 (kg/10a)	상품수량 지수
대사니	58.0	49.8	34.4	8.0	1,608	1,470	131
남도	52.8	48.5	33.1	7.9	1,282	1,136	100

○ 이런 점은 다소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은 토양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으므로 토양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배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한 토양에서 재배하다 보면 토양 병해충 등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토양의 산도가 강하면 지상부 생육이 불량하고, 뿌리의 끝이 둥글게 굽어지고 마늘 알뿌리의 비대가 좋지 않으므로 석회와 퇴비사용으로 토양조건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남도’ 품종



‘대사니’ 품종